광주은행, 지방은행 브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선정

이미지·선호도 등 항목 높은 평가
송종욱 행장 취임 후 매년 1위
공모전·직원 서포터즈 활동 등
브랜드 경쟁력 제고 '한 몫'

26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방은행 브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인증식이 열리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기업 브랜드 경쟁력을 견주는 '2022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평가에서 5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송종욱〈사진〉 광주은행장 취임 이후 첫 1위 선정을 이룬 뒤 5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

26일 광주은행은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2022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식을 열었다.

기념 행사에는 송 은행장과 이성욱 노동조합 위원장, 이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상무 등 한국능률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해 24회를 맞는 이 시상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관리 지표이다.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각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만2000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대 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은행은 올해 평가에서 이미지와 선호도, 이용가능성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종욱 은행장의 취임 이듬해인 2018년 첫 지방은행 부문 1위에 선정된 뒤 해마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측은 "광주은행은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친절하고 믿음이 가는 은행',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안정적인 은행'으로 신뢰받고 있다"며 "지역밀착경영 강화를 통한 지역 내 탄탄한 영업력과 디지털뱅킹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사명을 다하는 임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 5년 연속 1위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의 이 같은 성과는 '고객 밀착 경영'과 '지역사회 환원 강화'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은 고객과 소통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지난해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소셜미디어(SNS) 서포터즈 '광은인싸'를 출범해 SNS 구독자를 1년 만에 30% 이상 늘렸다. 2기 직원 서포터즈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각종 금융정보와 새 상품, 행사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12기를 맞은 대학생 홍보대사와 고객 대상 공모전,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통한 내부 소통, 일대 일 방식 경영전략회의 등도 고객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환원하는 지역사회공헌도 활발하다.

광주은행 1700여 임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기록적인 폭우 등 여러 재난현장을 찾아 직접 만든 응원꾸러미를 전달하며 위로했다.

장학사업과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등도 대표적인 상생활동 중 하나이다.

광주은행 옛 본점 자리에 있는 '포용금융센터'를 필두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지난달 말 기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지원은 1조3026억원(2만8914건)에 이른다.

송 은행장은 "5년 연속 1위의 쾌거는 광주·전남 지역민과 고객의 한결같은 성원과 신뢰 덕분에 가능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급변한 경영환경과 금융의 디지털화로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도 고객의 마음을 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성 있는 고객과의 소통 등이 '광주·전남 대표은행'이라는 광주은행의 브랜드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속적인 고객중심·지역밀착경영으로 지역과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

농지보전부담금 전자고지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전자고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KT·네이버 등)를 통해 납부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게 됐다.

납부자는 어디서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고 분실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는 종이 고지서 발행량 감소로 고지서 발행·폐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는 모바일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전자고지서를 미열람한 경우에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해 고객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환율, 3거래일째 연고점 경신

원·달러 환율이 26일 상승하며 1250원대에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9원 오른 달러당 1250.8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3월23일(1266.5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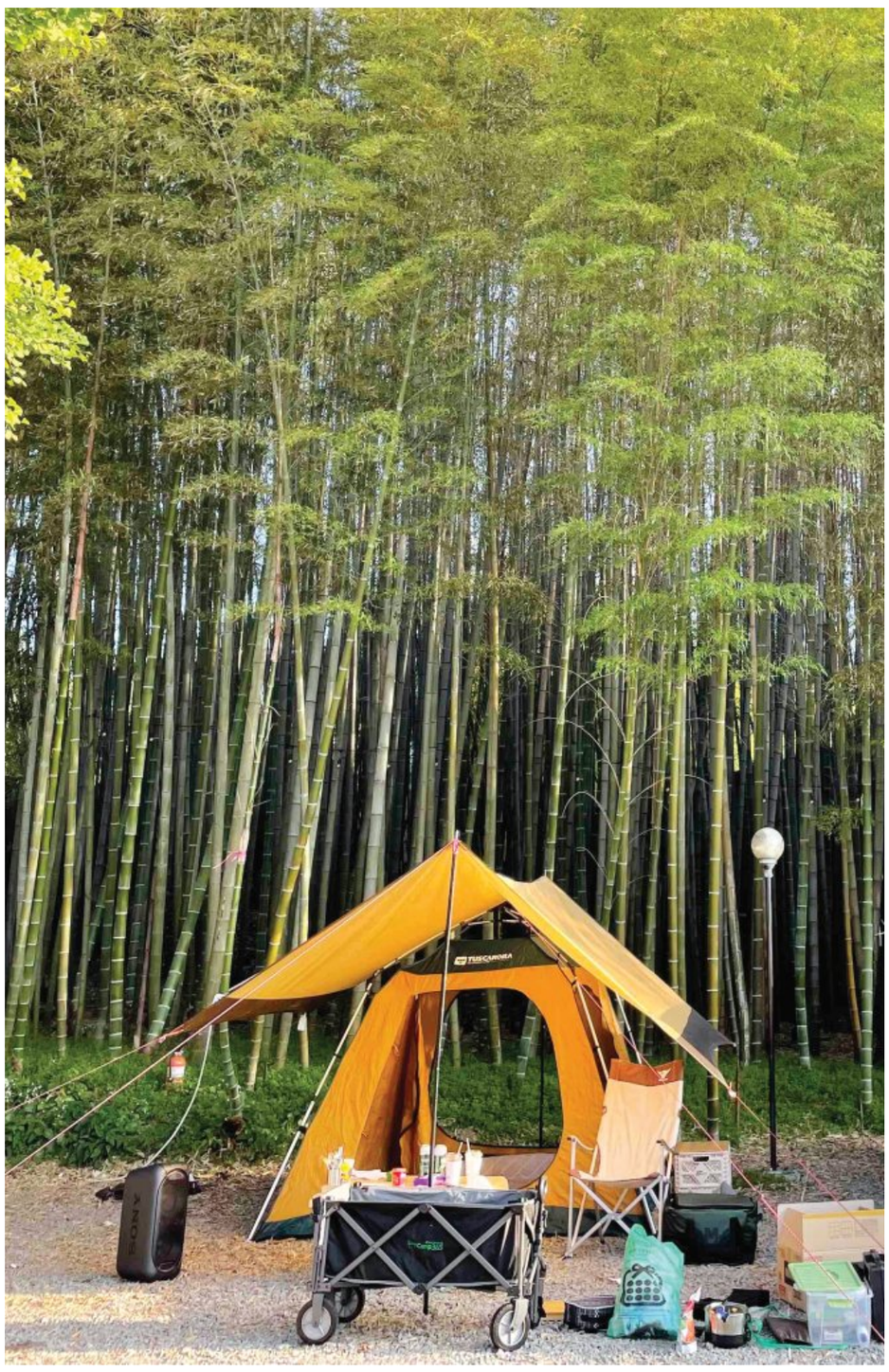
환율은 전장보다 0.4원 내린 1249.5원에 출발해 오전 한때 1251.4원까지 올랐지만, 중국 위안화 가치 상승과 고점 인식에 따른 달러 매도 물량 유입 등으로 1245.3원으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1250원선으로 반등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장 마감 직전 1251.2원까지 올라, 지난 22일부터 3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다. 장중 기준으로 2020년 3월24일(1265.0원) 이후 최고치다.

시장은 미국의 빠른 긴축 정책 기조와 중국의 베이징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해 강달러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68.31 (+11.18)
↑	코스닥	911.16 (+11.32)
↓	금리 (국고채 3년)	2.830 (-0.027)
↑	환율 (USD)	1250.80 (+0.90)


광주신세계는 27일 오후 4시 장성 편백 숲에서 '캠핑 특집전'을 열고 모바일 앱으로 생중계한다.

손 안에서 체험하는 '장성 편백나무 숲 캠핑'
광주신세계, 오늘 모바일 앱 생중계…텐트 등 캠핑 용품 소개

㈜광주신세계가 27일 신세계 모바일 앱을 통해 '캠핑 라이브방송 특집전'을 처음 진행한다.

이날 생방송 판매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광주신세계는 장성 편백힐 오토 캠핑장에서 '야외에서 펼치는 캠핑 감성'을 주제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텐트와 캠핑 의자, 난방 장치 등 캠핑 용품 15가지가 소개된다.

캠핑장에서 즐길 수 있는 무항생제 녹색한우와 곡성 백세미, 모심찬 김치, 고래사 어묵 등 먹을 거리도 소비자를 만난다.

이외 '크록스' '스노우피크' '블랙야크' 등 브랜드가 참여해 캠핑 의류를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캠핑의 계절을 맞아 장비부터 먹거리, 의류까지 다양한 캠핑상품을 특집전에서 선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산세무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중기 세정지원' 협약

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는 26일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센터장 정종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정책 공동홍보,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이다.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주최 교육과정에 대한 강사 지원과 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상대 기관의 중소기업 등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자료 배포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종학 광산세무서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해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상의, 전자입찰 컨설팅 참여 기업 모집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전자입찰 컨설팅에 참여할 광주지역 소재 기업 18개사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입찰 컨설팅 지원사업은 광주시 소재 기업들의 공공 및 민간 입찰 낙찰률을 높이고, 입찰 전문성 강화를 통해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문가들이 2~3차례 신청 기업을 방문해 전자입찰의 참여를 위한 각종 증명·인증 발급 및 등록 준비 지원, 동종업계 낙찰현황 분석, 사정률 예측 및 적정 투자금액 산정 등 기업이 원하는 분야에서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광주상의는 지난 12년간 해당 사업을 통해 6000여개 기업에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낙찰을 지원했다. 경기침체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입찰 정보 수집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다음달 31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선착순 모집하고, 모집 완료 후 곧장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 공지사항이나 협력사업본부 전화(062-350-5893)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해양에너지 창립 40주년 사은행사

광주·전남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사은 행사를 벌인다.

해양에너지는 다음달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소셜미디어 사은 행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응모 대상은 해양에너지 고객들로, 모바일 앱을 내려 받고 접속해야 한다.

해양에너지 공식 인스타그램(@hyenergy_official)을 구독한 뒤 '창립 40주년 고객감사 SNS 이벤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축하 댓글을 남기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5월11일 개별 발표된다. 무선이어폰과 치킨 상품권 등 총 40명에게 선물이 주어진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1982년 ㈜해양도시가스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광주·전남 80만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김형순 대표는 "지난 40년간 고객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는 해양에너지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